

내가 살았던 북한사회¹⁾

올분과 좌절의 반세기

조 상 철(가명, 1997년 탈북)

해방둥이로 태어나

나는 조선이 일제 치하에서 해방이 되던 그 해, 1945년 2월 3일 아버지 조덕배(가명)와 어머니 김씨 사이에서 외아들로 태어났다. 출생지는 중국의 천진(天津)이며 내가 태어나던 해 조국이 해방되면서 아버지는 가족을 이끌고 고향인 신의주로 돌아왔다. 어린 시절을 신의주에서 보낸 나는 그래서 신의주가 내 고향이 되었다. 외아들이었던 나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각별한 사랑을 받으며 자라났다. 아버지는 늘 나를 보고는 '우리 장군'이라고 부르며 번쩍 들어 올려 까실까실 수염 난 볼을 비벼대며 귀여워해 주시곤 하셨다. 까맣게 치켜 올라간 눈썹이며 정기마저 도는 듯한 눈과 날이 선 콧날 등 아버지는 정말 나무랄 데 없는 미남이셨다. 어머니 역시 가름한 얼굴에 쌍꺼풀이 진 눈이 시원스런 미모의 여인이었다. 가끔씩 그런 부모님

1) 본래 편집자의 의도는 “북한농촌생활이야기”였으나 필진이 사정상 바뀌면서 편집의도대로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해방 후 최근까지 북한에서 살았던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 북한사회의 한 측면을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게재하였다.

의 모습이 담긴 사진 한 장 갖고 있지 못한 나 자신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다. 어느 날 국가보위부에서 아버지를 데려가고 난 후 어머니와 함께 우리 가정의 모든 가재도구와 함께 사진 한 장 남기지 않고 모두 압수하여 갔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는 물론 나의 유년시절을 추억할만한 사진은 한 장도 가진 것이 없다.

아버지는 고향 신의주의 한 빈농(貧農)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한다. 아버지의 형제들은 모두 하나같이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해 문맹자들이었다. 그런 중에서도 유독 공부에 대한 열망이 남달랐던 아버지는 신의주고등보통학교를 고학으로 마치고 어머니를 만나 약혼을 하였으며,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 신문배달을 해가며 근근히 대학까지 마치게 되었다. 어머니 역시 처지로 보면 공부를 한다는 것은 사치스런 일이었지만 아버지의 강권에 따라 함께 공부를 할 수 있었다. 어머니는 어린 나에게 아버지 덕에 당신이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늘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람은 배워야 한다면서 도쿄(東京) 유학시절(?)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못해 하셨다.

이러한 남다른 인연과 사랑으로 살아온 때문인지 아버지가 억울하게 정치범의 누명을 쓰고 체포되어 구금되었을 때에는 죽음이라도 함께 할 각오를 한 듯 비장함을 보이기가까지 하셨다. 아버지의 석방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던 어머니는 결국 아버지가 간 그 길로 함께 가셨지만, 또 그로 인해서 나에게도 엄청난 불행이 닥쳐왔지만 나는 한 순간이라도 어머니를 원망해 본 적이 없다. 죽음의 자리에까지도 함께 뛰어 들만큼 두 분의 애뜻하고 지순한 사랑에 그저 목이 메일 따름이다.

16살 소년이 본 북조선

북한 사회는 일제 하에서 공부를 한 소위 인텔리들을 그리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부르조아적 사상이 깊이 배인 반혁명적 불순분자들

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늘 감시 속에 웅크린 채 숨을 죽이며 살아야만 했다. 일본에서 고학으로 대학을 마친 아버지는 일본 놈들 밑에서 일하는 것이 싫다며 당시 천진에 살고 있던 큰아버지 댁에 와 얹혀 사는 신세가 되었다. 변변한 직업도 없이 세월만 한탄하며 지내는 사이 내가 태어났고, 곧 이어 조국이 해방되자 고향으로 돌아왔다. 공산당 정부는 강요하다시피 아버지를 노동당에 가입시켰고, 고급중학교 교장의 자리에 얹혀 놓았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 가지 못했다. 과거 중국에서 지낼 때, 당시 백범 김구 선생이 조직한 '선무단'이라는 조직에 들어가 해방을 맞아 조국으로 귀환하는 동포들의 편의를 봐주었다는 전력을 문체삼아 교장 자리는 물론 당에서도 쫓겨나게 되었다. 그 때는 아마도 북한이 김구를 남한 적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이라고 판단하던 때였던 것 같다.

아버지는 자신의 이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길은 오직 당중앙위원회에 탄원을 하는 길 밖에 없다고 판단하시고는 여러 차례에 걸쳐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내가 열 두 살 나던 해, 그러니까 1956년 어느 날 아버지는 노동당에 복당 되었고 당이 운영하는 작은 병원의 사무원으로 일을 하게 되었다. 이 때 5년여 동안 우리 가족은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조국해방전쟁¹⁾이 끝난 뒤의 북한은 그야말로 온 나라가 인민들의 사상무장을 독려하며 갖가지 구호를 내걸고 간첩색출에 부산하였다. 아버지는 함께 일하던 동료의 모함에 의해 간첩과 공모한 반혁명분자이며 당에 중대한 해(害)를 끼친 행위를 하였다 하여 잡아 가두고는 자백을 강요하였다. 간첩과 공모를 했다는니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날조였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는 증명을 할 방도가 없었다. 환자들이 먹는 밥에 유리가루를 섞어 죽이려 했다는 등의 누명을 씌워 자백을 강요하니 역장이 무너지는 일이나 달리 모함에서 벗어날 길이 보이지 않자 아버지는 자살을 결심하기에 이르렀던 모양이다. 마침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자살을 시도했으나 줄을 목에 매고 바람벽에 매달리는 찰나

1) 6·25전쟁을 북한에서는 그렇게 부른다.

갑자기 들어온 누군가에 의해 발각이 되고 이로 인해 아버지는 곧 풀려나게 되었다. 그 때 내 나이는 불과 열 여섯, 세상을 알기에는 이른 나이였지만 벌써 그 당시 내가 살던 북한이라는 사회는 16세 소년인 나에게 일말의 희망조차 보여주지 못하는 참으로 생존 자체가 곧 전투인 곳이었다. 본 것을 본 그대로 말해서는 안되었다. 느낀 것이 있어도 느낌 그대로 표현하면 비판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열 여섯 살배기 소년이 감당하기에는 매우 불안하고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곤 했었다. 밤마다 되풀이되는 학습에 지친 부모님들의 얼굴에서는 차츰 미소가 사라져갔고 일주일이 멀다하고 찾아오는 인민재판에서는 반혁명분자들의 죄상을 폭로하고 단죄하는 일이 일상화 되어갔다.

아버지가 석방되고 다시 찾은 기쁨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중학교 졸업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복차림의 내무서원(지금의 안전원) 몇 사람이 들어 닦쳤다. 신발도 벗지 않은 채로 방안에 들어선 그들은 나를 꼼짝 못하게 하고는 집안 곳곳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이불장, 옷장 등 변변찮은 가구들이지만 모든 가재도구들에 딱지가 붙었다. 집은 온통 이수라장이 된 가운데 밖에서 들어오신 어머니는 마치 낯이 나간 사람 같았다. 인민위원회에서 집회가 있다고 하여 나갔는데, 이 집회가 바로 반혁명분자들의 죄상을 폭로하고 인민들의 손으로 단죄를 하는 소위 인민재판이었던 것이다. 그곳에서 아버지는 다른 몇 몇 사람들과 함께 죄인의 몸이 되어 대중 앞에 세워졌다. 장내가 떠들썩하게 고함을 지르고 주먹을 휘두르며 당장 처단하라고 외쳐대는 군중들 사이에서 어머니는 그만 앞이 캄캄해져서 그 이후는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기억조차 할 수 없다고 했다. 그 날 이후 우리 모자(母子)는 주변으로부터 완전히 고립무원(孤立無援)의 상태로 빠져들었다. 가까이 지내던 이웃들도 의식적으로 우리를 멀리했으며, 친척들조차 발길을 끊었다. 가까운 이웃 사촌들마저도 원수로 변해야 하는 것이 북한 사회의 냉엄한 생존의 비결이라는 것을 뼈아프게 느끼게 된 것이 이때였다.

나에게도 본격적인 시련의 시간이 닥쳐왔다. 어머니는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아버지의 구명을 위해 뛰어 다녔다. 아버지는 절대로 죄를 지은 일이 없으며, 여기에는 반드시 무슨 음모가 있다고 믿은 어머니는 울며불며 곳곳에 호소하였다. 심지어 지나가는 사람들까지 붙들고 생사람 잡는다고 외쳤다. 밤낮 아버지 문제로 골몰하던 어머니는 급기야 김일성 수령 앞으로 편지를 썼다. 지금은 간단히 김일성이라고 말해도 하등의 문제가 없지만 그 때는 김일성 이름 앞에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이고 존대하는 수식어를 적어도 7-8가지는 붙여야 했다. 무슨 답변이 있을까 길고 긴 사연을 적어 붙이고 또 붙였다. 답이 있을 리가 없었다. 당중앙위원회 신소처리부²⁾에서 한번 보고 끝나는 것이었다. 몇 번이나 편지를 보내도 소식이 없자 어머니는 결국 평양행을 결심하셨다. 천신만고 끝에 평양에 있는 당중앙위원회를 찾아간 어머니는 그곳에서 아버지와 같은 혐의로 함께 체포된 의사 선생의 부인을 만나 같은 사정을 나누고 남편들의 석방을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결국 당중앙위원회 신소처리부에서는 무슨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는지 검열단을 조직하여 현지로 내려보내 집중 검토를 하기 시작했다.

배(船)도 탈 수 없는 출신성분의 벽

결국 사건은 조작되었음이 백일하에 드러났지만 그로 인하여 입은 한 가정의 피해는 어느 곳에서도 보상을 받을 길 없는 깊은 상처로 남게 되었다. 공명심에 사로잡혀 출세에 눈이 어두워진 열성분자들 몇이 간첩사건을 조작해 공을 세우려 했던 어이없는 조작극이었다.

아버지는 석 달에 걸친 감옥생활에 갖은 고초를 다 겪었노라고 털어놓았다. 마지못해 석방은 하였으나 이것은 권위를 중시하고 공명정대함을 표방하는 당(黨)기관이나 사법기관으로써는 커다란 실책이

2) 우리나라의 청와대 민원실이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정도에 해당한다.

있으며 체면손상 또한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소위 혁명적 견해와 입장은 또 다른 것이었다. 개인을 희생 시켜서라도 당의 권위와 명예를 지키려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옹당히 치리야 할 인격적 물질적 최소한의 보상마저도 외면한 채 감옥에서 당한 일을 절대 비밀에 붙여야 한다는 서약까지 강요했다고 한다. 아버지는 결국 석방은 되었지만 피골이 상접한 모습으로 혼자 힘으로는 앉아 있기조차도 힘든 모습으로 평안북도 어느 산간 오지의 협동농장으로 배치되어 가야 했다. 그리고 함께 누명을 쓰고 처형을 당할 뻔했던 의사선생은 어느 광산 노동자로 배치되었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그 때는 식량사정이 그래도 지금보다 나은 편이었으나 그리 넉넉지는 못했다. 식사량을 잘 조절하지 않으면 보름치 배급을 받아 한 주일을 먹기에 족할 정도였다. 아버지는 그 후 ‘농촌건설대’라는 곳에 배치가 되었는데, 20리 길을 걸어서 출퇴근을 해야 했다. 꼭두새벽에 나서면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시간은 밤이 늦어서였다. 아버지의 점심을 싸고 나면 어머니는 늘 점심을 모르고 살았다. 이러구러 몸이 약해진 아버지는 고된 일에 시달리다 끝내 간염에 걸렸다.

아버지에 대한 감시와 핍박은 심해져갔다. 이런 가정환경은 나의 학교 공부에도 커다란 장애가 되었다. 어려서부터 공부도 괜찮게 하고 학교에서 시키는 일도 고분고분 잘하다 보니 매학년 학급장이나 분단위원장(소년단 조직책임자)을 시켰었다. 그러나 계급투쟁이 심화되면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학업성적이나 사업능력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족보를 놓고 가치기준을 따지기 시작했다. 나는 차츰 중심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었고 피살자 가족³⁾ 등이 가정환경이 좋은 것으로 평가를 받고 학교에서도 그런 집 아이들이 간부를 맡게 되었다. 공부야 잘하든 못하든, 품성 또한 좋든 나쁘든 머저리가 아닌 이상 그런 집 아이들은 간부를 맡았다. 상급학교에

3) 6·25전쟁 당시 적(국군)의 손에 의해 피살된 자의 가족들을 말함.

진학을 하는 것도 기술학교까지는 그런대로 할 수가 있었으나 고등 기술학교나 대학에는 추천조차 안 해주니 시험을 치를 기회마저 주어지지 않았다. 더 이상 배움의 길이 막히고 말았다. 몹시 섭섭하고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바다에 나가고 싶었다. 그래서 수산사업소에 지원하여 어로공(漁撈工)이 되었다.

어로공이 된 나는 그나마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답답한 가슴을 열어 넓은 바다를 향해 하소연하고 싶은 작은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 기뻐다. 그러나 배를 타고 세 차례인가 바다에 나갔다 돌아온 이후 나의 그런 꿈은 좌절되고 말았다. 알고 봤더니 출신성분이 좋지 않거나 소위 가정환경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바다에 내보내지 않는다는 지침이 내려져 있다는 것이었다. 아마도 남조선으로 넘어갈 것을 우려한 탓이었던 것 같다. 나는 다시 도자기공장의 소성공(燒成工)으로 보내졌다. 사발을 구워내는 일이었다. 한여름의 띄약벌아래 1200도가 넘는 고열이 뿜어져 나오는 로(爐) 앞은 지붕조차 없는 곳이었다. 숨이 턱에까지 차 오르고 이마에서는 흐르는 땀방울이 자꾸만 눈으로 들어가 눈을 뜰 수조차 없었다. 석탄가루와 재 먼지를 뒤집어 써 마치 흑인처럼 온 몸은 새까맣고 오직 이빨만 하얗게 드러나기 일쑤였다.

한편, 광산에 배치 받아 지하 막장에서 고생하며 천대와 멸시를 받아오던 의사 선생에게 뜻밖의 행운이 찾아왔다. 전쟁 중에 헤어져 소식을 모르던 친동생이 일본에 있는 조총련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온 것이다. 편지와 함께 가족사진도 동봉되어 온 것을 확인한 군(郡)당위원회에서는 그를 다시 불러 의사로 복직시켜주는 한편 복당(復黨)도 시키는 특혜를 주었다. 일본에 살고 있는 그의 동생으로부터 환심을 사야 무언가를 기대할 수 있다는 계산된 조치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일이었다. 내가 살았던 북한은 매사가 그러했다. 저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어제까지 쓴 외 보듯 하던 사람이라도 하루아침에 당원으로 둔갑시키고 의사로 둔갑시키는 것이다.

해외에 살고 있는 친척이 찾아온다고 하면 부랴부랴 좋은 집으로 이사를 시키고 갖가지 가재도구를 주어 치장을 시키는가 하면 쌀독에는 입쌀까지 채워준다. 부자 못지 않게 잘산다고 하는 것을 선전하기 위한 위장인 것이다. 적어도 이런 일은 내가 살았던 그 당시 신의주 일대에서 자주 보아온 일이었다.

깨어진 신혼의 단꿈

1968년 여름, 아버지가 북창화력발전소 건설사업소로 배치되어 우리 가족은 이사를 하여야 했다. 북창화력발전소는 소련(지금의 러시아)에서 설비를 가져다가 소련 기술고문단의 방조(지원)로 건설되는 120만 킬로와트 능력의 대형 발전소였다. 나는 기술학교에서 화학성적이 특별히 우수했던 것을 인정받아 발전소 화학실험실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1년 동안 평양화력발전소 화학실험실에서 실습을 받고 돌아왔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내가 그 험한 일에서 벗어나게 된 것을 무엇보다 기뻐하셨다. 비로소 사람답게 사는 것 같아 열심히 일에 매달렸고, 일과 관련한 공부 또한 열심히 하였다. 소련에서 온 기술자들까지도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던 중 하루는 평양에 기술 배우러 갔을 때 함께 다녀 온 동무가 찾아와 중매를 서겠다고 제의를 하였다. 농담으로 받아 넘겼으나 며칠 후 진짜로 웬 처녀를 데려와 대면을 시키면서 자신의 누이 동생이라고 소개를 했다. 결국 그것이 인연이 되어 나는 그 처녀에게 장가를 들었다.

결혼한 지 3일이 지나서인가 아버지는 이제는 내 집 식구라고 생각했던지 머느리를 얹혀놓고 몰래 감추어 두었던 사진첩을 꺼내 보여주었다. 그 사진들 중에는 아버지의 대학 졸업 사진들도 있었는데, 거기에는 일본군 교관이 칼을 차고 학생들에게 군사훈련을 시키는 장면도 있었다. 그리고 사각모를 쓰고 까만 세라복에 망토를 걸친

대학생들의 모습이며, 기타 여러 가지가 당시 북한 사회의 생활수준과는 비교할 수 없는 화려한 모습들의 사진이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고학이었다고는 하나 아버지는 당시 문물이 조선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앞선 일본의 중심 도쿄에서 대학을 다니지 않았던 가 말이다. 농촌에서 태어나 자라고 그 땅을 벗어나 본 일이 없었던 아내는 몹시 놀랐던 것 같다. 옛날 일제시대에 무슨 순사를 했던가 아니면 큰 부자였거나 지주였던 것으로 착각을 한 모양이다. 당시 북한 사회에서는 늘 교양(사상학습)을 통해서 옛날 밥술이나 먹고 공부를 한 사람들은 모두가 나쁜 놈들로 매도하였고, 못살고 천대받던 사람들이야말로 대접받아야 할 사람들로 추켜 세워주었다. 전자의 경우는 악질분자로, 후자의 경우는 성분이 좋은 집안으로 인정을 받았던 것이다. 며칠이 지나 아내의 오빠 되는 이가 술을 먹고 찾아와 다짜고짜 누이를 데려가겠다고 했다. 아버지가 도대체 무슨 이윽나고 물으니 “딱 집어 말해야 되겠는가?” 라며 몹시 불손한 태도를 취했다. 이 일이 있은 후, 아내는 재판소에 이혼소송을 냈다. 재판정에서 원고가 제출한 소장을 읽어주는 것을 들어보니 너무나 어이가 없었다. 집안의 성분이 어떻고 하는 것을 내세워 못살겠다고 하는데 나 역시 그런 여자를 억지로 붙들고 싶지 않아 요구대로 이혼을 하기로 했다.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북한 사회는 가정의 화합을 도모하는 방향에서가 아니라 성분문제를 들고 나오는 측의 요구와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해줄 뿐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은 제 아무리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묵살되고 만다. 결국 소송에 든 비용 50원은 내가 부담하라는 명령과 함께 신혼의 단꿈은 이렇게 간단히 끝나고 말았다. 피비린내 나는 계급투쟁의 회오리바람이 몰아치는 북한 사회에서는 이만한 희생이야 다반사로 목도(目睹)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 후 1969년 12월 31일, 나에게서는 또 한번의 시련이 닥쳐왔다. 아버지께서 영문도 모른 채 또 다시 보위부에 연행되어 가신 것이다. 가택수색을 당한 것은 물론이다. 그때 내 나이는 스물 다섯이었

다. 어려서부터 한 인민이 겪을 수 있는 시련치고는 가혹하다 싶을 만큼 북조선 사회는 나를 가만 두지 않았다. 이 무렵에는 마침 일반 범죄를 다루는 안전부 외에 정치범만을 담당하는 보위부가 새로 생긴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였다. 그저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는 일이었으나 뭐라고 딱히 손을 쓸 방도가 없었다.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인지, 어디로 끌려 가셨는지 여기저기 알아보도 안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정치범으로 한번 붙잡혀 가면 그것으로 마지막이다.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재판절차는 어떻게 되는 지 아무도 모르는 게 북조선 사회다. 충격으로 급기야 어머니는 자리에 누우셨고, 그 날 이후 아버지의 소식은 영영 알 길이 없다. 어딘가에 살아 계신다 하더라도 이미 구순(九旬)을 바라볼 나이가 되신 아버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리라 믿고 있다.

홀로 남은 나는 직장에 계속 나가기는 했으나 주변으로부터 차츰 멀어지고 있다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나에게 맡겨지는 일은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하찮고 단순한 자리로 밀려 내려가고 있었다. 어느 날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꺾밥(도시락)을 싸들고 10리는 걸어야 하는 농촌으로 노력동원에 내몰리기도 했다. 내가 맡은 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허드렛일 또한 언제나 내가 해야만 했다. 이 무렵에야 비로소 몰락한 한 반동분자 집안에 혼자 남은 감시의 대상임을 눈치 챌 수 있었다. 차츰 발전소 안에서는 내가 일할 자리가 없어진다는 생각이 질어갈 무렵, 1974년 10월 어느 날 마침내 북창군에 있는 한 협동농장으로 이주를 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성분이 좋지 못한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추방명령이었다.

협동농장으로 추방

어머니를 모시고 협동농장으로 이사 오던 날, 무너질 듯이 위태롭게 서 있는 움막집 하나를 수리해서 살기로 했다. 10월 하순 평안도 산골의 날씨는 벌써 추위가 찾아왔다. 대충 청소를 끝내고 아궁이에

불을 때니 방안 여기저기 바람벽에서는 연기가 새어나와 온 방안을 가득 채웠다. 매운 연기 때문인지 북받쳐 오는 설움 때문인지 눈에서는 연신 눈물이 쏟아졌다. 간신히 자리를 하고 누워 잠을 청하는데 아버지 생각에 목이 메어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어머니 또한 같은 생각이신지 연신 뒤척이기만 하셨다.

난생 처음 해보는 협동농장에서의 농사일은 여간 힘들지가 않았다.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고도 밤에는 또 야간작업을 해야 했다. 겨울이 닥쳐 올 때라 남자들은 산에 가서 나무하는 일을 시키는데 나는 난생 처음 해보는 일이라 나뭇단을 묶는 것조차도 힘이 들었다. 먹는 것 또한 발전소에서 일할 때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말이 아니었다. 하루 종일 몸이 팽이 돌 듯 돌고 나면 현기증이 날 정도였다. 처음 1년 동안은 배급을 주는데 그것으로는 멸건 국물만 먹어야 했다. 부식이라고는 채소 한 뿌리 없이 된장과 간장뿐이었다. 어찌다 마을에 초상이라도 나 관이라도 메어 주면 떡과 술을 얻어먹었는데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었다. 나중에는 은근히 동네에 초상이 나기만을 기다리는 나를 보고 있자니 한숨조차 나오지 않았다. 이 때 이미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가 서서히 그 실패의 서막을 알리고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한국에 와서야 깨달을 수 있었다.

어느 날, 농장 당위원회에서 도서검열을 나왔다. 마을의 집집마다 다니며 반동서적들이나 혹은 사상교양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출판물들을 색출하여 회수해 가는 것이 도서검열인데, 우리 집도 예외일 수는 없었다. 어릴 때부터 나는 그림에 취미가 있어 틈틈이 그림을 그렸던 적이 있는데 그 때마다 버리지 않고 모아두었던 그림들이 문제가 되었다. 그 그림들 속에는 김일성의 초상을 그린 것들이 몇 장 있었는데 오래 되고 여러 차례 이사를 하다 보니 보관 상태가 좋을 리 만무하였다. 색도 바래고 군데군데 찢어져 나간 부분도 있고, 접힌 자리는 닳아서 너털거리기도 하였다. 검열원은 내가 그린 초상화들을 압수해가면서 일주일치 식량을 미리 준비해서 당위원회로 찾아오라고 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북한에서는 김일성 수령의 초

상화는 국가가 발급한 전문 화가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이 그릴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당 유일사상의 10대 원칙 가운데는 김일성의 초상화나 사진이 있는 출판물들은 정중히 관리 보관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당위원회를 찾아가 자아비판서를 써야 했다. 하루종일 앉아서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써야 하는 것이 자아비판서이다. 온 종일 머리를 쥐어짜며 비판서를 써서 올리면 대중 훑어보고는 아직도 비판이 부족하니 다시 쓰라고 한다. 그러기를 일주일, 곤욕을 치르고 나서야 끝이 났다. 다행히도 그림 밑에 써놓은 날짜와 연도가 있어 철없던 어린 시절의 그림이라는 것이 통했던지 그나마 무사할 수 있었다. 추방가족이라는 오명을 쓰고 이런 산간벽지로 강제 이주되어 값도 없이 살다가 가야만 한다고 생각하니 기가 막히고 한숨만 나왔다.

그렇게 협동농장에서의 고달픈 삶을 이어 가고 있던 어느 날, 당 위원회에서는 쏘련에 보낼 별목공으로 나를 지목하였다는 소문이 들렸다. 사실을 알아 본 즉, 집에 혼자 남겨질 어머니 때문에 통보를 좀 미루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 당시 쏘련에 별목공으로 보내지는 사람들은 주로 나와 같은 출신성분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나는 별목공으로 보내달라는 요청과 함께 어머니는 자강도 이모택으로 보내달라고 간청을 하였다. 검토해 보겠다고 말하는 당 간부의 얼굴을 보니 전혀 가망이 없을 것 같지는 않아 조금은 마음이 놓였다. 홀로 계실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려왔지만 나에게게는 기회다 싶었다. 반백의 머리카락 사이로 눈물을 감추시던 가냘픈 몸매의 어머니를 뒤로하고 기차에 몸을 실은 것이 7월말이었다. 이것이 내가 마지막 본 어머니의 모습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장마에 불어난 골짜기 물소리가 꺾전을 때리는 가운데 어느덧 기차는 국경을 흐르는 두만강을 건너고 있었다.

울분과 좌절의 세월

끝도 없이 펼쳐진 밀림은 이깔나무와 전나무 등 아름드리 나무들의 천국이었다. 그저 보이는 것이라고는 나무들뿐이었다. 하는 일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무와 씨름하는 것이 전부였다. 밀림 속에는 깔따귀(모기의 일종)떼가 많았는데, 그 고통이 여간 아니었다. 얼굴과 손목, 외부에 드러난 부분이면 어김없이 달려들어 쏘아대는데, 물리면 금방 부어오르고 가렵기가 보통이 아니어서 고문이라도 당하는 기분이었다. 그러나 내게는 추방가족으로서의 모멸감과 압박으로부터 해방된 것이 마음 편하고 좋았다. 문득 문득 떠오르는 어머니 생각을 빼놓고는 곡절 많은 인생이 모처럼 한가로운 여유를 보낼 수 있을 만큼 밀림은 내 마음의 안식처가 되었다. 한 달에 한번씩은 어머니께 편지도 보내고 답장을 받는 것도 큰 즐거움의 하나였다.

어머니는 내가 소련에 온 후 석 달쯤 후에 자강도 이모 댁으로 이주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렇게 밀림에서의 생활이 열 달쯤 지났을까 어머니로부터의 편지가 끊어졌다. 불길한 생각에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마침 이종사촌에게 편지를 보내 소식을 물었다. 불길한 마음이 적중이라도 하듯 보위부에서 어머니를 데려갔다는 답장을 받았다.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 다음 줄에 이어진 별일 없을 테니 낙심하지 말고 일 잘 하고 돌아오라는 위로의 말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보위부에서 데려갔으면 필시 정치범 수용소에 갔을 것이고 이제 어머니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니 나의 의지만으로는 더 이상 감당해낼 수가 없을 것 같은 고통이 엄습해왔다. 나무를 부여잡고 손에서 피가 터져 흐르도록 정신 없이 주먹을 휘둘러댔다. 이국의 낯선 땅, 밀림의 한 복판에서도 오직 한 분 혈육인 어머니와 행복하게 살날을 기다리며 고독과 싸우고 견디어 온 나날이 아니었던가. 가슴속 한구석에서는 피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감시와 감독이 엄한 집단생활은 죽는 것마저도 마음대로 놔두질 않았다.

울분과 좌절의 시간 속에서도 세월은 가고 귀국행 기차에 몸을 실었다. 1978년 여름, 아버지와 어머니를 빼앗아 간 조국이지만 그래

도 조국을 배반한다는 것은 내 마음이 허락하지를 았았다. 이 때 이미 내 나이 서른 넷, 조국에 돌아와 또 한번의 새로운 인생의 고개를 넘던 나는 처지가 서로 비슷한 처자를 만나 결혼을 하였다. 새로 개발을 시작한 광산에 자원하여 일자리를 얻어 살던 나는 9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점차 악화되어 가는 식량난을 견디다 못해 선량했던 이웃들이 어느 날 갑자기 도적으로 변하는가 하면 식량배급이 끊긴 이후로 어디서 몇 명이 굶어죽었다는 등 흉흉한 소문이 사실로 밝혀지던 어느 날, 나의 유년시절의 꿈이 서려있고 어딘 가 모를 곳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시신이 누워 있을 조국을 뒤로 한 채 국경을 방비하는 경비대의 눈을 피해 야음을 틈타 두만강을 건넜다. 울분과 좌절의 세월을 뛰어넘는 순간이었다. 農